

‘자립장애인 도전기’ 광주서 장애인식 개선 토크쇼

자립장애인·활동지원가 패널참여 활동지원서비스·이동권 등 논의 “장애인 현실 대한 편견 깨고자”

광주지역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이 직접 겪은 다양한 도전기를 진솔하게 공유하며 장애인 인식 개선을 이야기하는 특별한 토크쇼가 펼쳐졌다.

12일 오후 광주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는 자립장애인 토크콘서트 ‘난장 TALK(톡) 까놓고 말해서’가 진행됐다. 광주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인 비전장애인 자립생활센터(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크콘서트는 자립장애인이 생활에서 겪은 어려움을 유쾌하게 풀어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자 마련됐다.

콘서트에는 광주지역 장애인 지원단체,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시민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토크쇼에 앞서 센터 내 음악밴드 ‘텔러비전(Teller(말하는 사람)+비전(센터 이름))’의 공연이 펼쳐졌다. 텔러비전은 가요 ‘엄마가 딸에게’를 개사한 ‘누나가 동생에게’와 ‘나는 문제없어’를 합창해 부르며, 자립장애인들의 자립 의지와 자립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표현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토크쇼에는 사회자로 방선이씨, 패널로는 자립장애인 장수만·윤정민씨와 활동지



12일 오후 광주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자립장애인 토크콘서트 ‘난장 TALK(톡) 까놓고 말해서’가 진행됐다.

원사 이관형·마승일씨가 참여했다. 특히 장수만씨와 이관형씨는 각자 자립장애인과 활동지원사로 10년 이상 호흡을 맞춰왔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1부에서는 자립장애인의 일상에 필요한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2부에서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주제로 자유로운 대화가 이뤄졌다.

1부가 시작되자 자립장애인들의 동반자로 발을 맞추는 활동지원사들의 역할과 애로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됐다.

자립장애인 윤정민씨가 “활동지원사에게 일을 도와달라고 재촉하면 ‘불만 있으면 스스로 해라’라고 한다. ‘장애감수성’이 부족하다”며 거짓눈담을 던지자 담당

활동지원사 마승일씨가 “나는 절대 그런 적 없다. 모함하지 말라”고 손사래를 쳐 참석자들의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이어진 토크쇼에서는 노동법상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게시간이 주 문제가 됐다. 활동지원사들이 4시간의 근무 후 부여되는 휴게시간에도 장애인들을 도와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지만, 임금은 받지 못한다고 토로하자 자리에 참석한 다른 활동지원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진행된 2부 ‘장애인 이동권’ 주제에서는 외출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이야기했다. 패널들은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동시 광

주지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새빛콜에 의존해야 해 장애인들이 본인의 의지대로 외출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토론했다.

윤정민씨는 “새빛콜을 불렀을 때 빨리 잡히게 되는 경우에는 외출 준비 도중에 급하게 나가야 한다”며 “오래 안 잡힐 때는 3~4시간을 기다리기도 한다. 그 시간이면 인천에 있는 강화도까지도 갔을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 “교통약자 택시 부족은 전국적인 문제다. 새빛콜의 운영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해외처럼 장애인들이 교통약자 택시에 의존하지 않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도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이 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수만씨도 “새빛콜이 1시간 넘게 잡히지 않아 40분 거리의 역까지 휠체어로 이동하기도 했다. 출발과 정거를 반복하는 버스의 경우 고장이 용이치 않은 수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활동지원사들의 도움없이 탑승자체가 어렵다”고 동의했다.

이어서는 이동약자들의 길거리 보행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됐다. 패널들은 보도블럭 등 인도가 제대로 설치·관리되지 않아 이동약자 뿐 아니라 비장애인들의 이동권 역시 침해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활동지원사이관형씨와마승일씨는 “활동지원사가 되기 전에는 장애인들을 쉽게 만나보지 못했다.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환경에서 만나기 어려운 사회이기 때문”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똑같은 사람이다. 오늘 이 자리가 모두 함께 더 나은 세상으로 걸어가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서지훈 비전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장애인들이 겪는 현실을 보다 가볍게 공유해보고 싶어 토크콘서트를 기획하게 됐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우리 사회가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편견을 깨보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사회문제를 보다 쉽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같은 병동 환자에 흥기 휘두른 7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요양병원 입원 중 같은 병동을 사용하는 환자와 다투다 흥기로 수차례 찢러 살해하려 한 70대 치매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2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을 받은 A(78)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1시께 광주 한 요양병원에서 흥기로 50대 초반 피해자 B씨를 수차례 찢른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A씨의 흥기가 부러지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B씨는 전치 8주의 큰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흥기로 여러 차례 찢러 살해하려다 흥기가 부러져 미수에 그쳤다. A씨가 범행에 앞서 한 말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갖고 한 범행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미수에 그쳤지만, 살해의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원심은 이러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23년 함께 산 아내 살해 8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23년을 함께 산 아내와 딸다툼 도중 화를 참지 못하고 둔기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80대 치매 노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2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8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8시30분께 광주 남구 방림동 연립주택 2층 자택 안방에서 아내 B(81)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름 도중 B씨의 욕설을 듣고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둔기로 스스로를 때리는 등 자해행위를 했고 자녀를 집에 불렀다. A씨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직후 자녀에게 연락해 119신고가 이뤄지게 했고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86세의 나

이로 수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10년~16년) 중 가장 낮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이유 불문하고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수십년을 함께한 남편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과 고령인 점 등 모두 고려해도 피고인의 책임에 비해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 어린이집 · 유치원 · 한옥 내 · 외부 · 방바닥 · 전원주택 · 경로당 · 아파트 · 펜션 · 찜질방 · 카페 · 휴집
- 외벽 · 목재 · 양어장 · 물탱크 · 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 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 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숯,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엄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